

국가기록원, 국립중앙과학관과 손잡고 과학기록유산 보존·활용 강화한다

- 국가기록원, 국립중앙과학관과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(11.6.)
- 첫 협력사업으로 천문·우주를 주제로 기록전시 ‘우주로 가는 길을 찾다’ 공동 개최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 국가기록원은 11월 6일(수), 국립중앙과학관과 ‘과학기록유산 보존 강화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 -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(경기도 성남시)에서 진행되는 업무협약식에는 국가기록원 이용철 원장,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.
 -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▲과학기술 관련 기록의 수집 확대와 보존 강화, ▲과학문화와 과학기록유산의 체험 콘텐츠 개발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 -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과학관은 첫 협력사업으로 천문·우주 분야의 중요 기록을 활용한 기획전시, <우주로 가는 길을 찾다>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.
 - 기획전시에서는 조선시대 천문·기상 기구인 관상감에서 헬리혜성 관측 기록을 남긴 ‘성변측후단자’*(1759)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. ‘성변측후단자’는 202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록문화유산이다.
- * 이번에 전시되는 성변측후단자(星變測候單子)는 1759년의 헬리혜성 관측기록으로, 왕실 산하 관청(관상감)이 작성한 기록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임. 혜성의 이동경로, 위치, 밝기 등을 상세히 기록해 조선의 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유산으로 평가받음

- 이와 함께 ▲2022년 발사된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으로 지금도 달 주변을 돌고 있는 다누리호 모형, ▲우주·항공 관련 법·제도 수립 등 국가우주정책 발전사에 관한 다양한 문서, ▲국내에 단 두 점뿐인 아폴로 월석(月石)도 함께 전시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.
- <우주로 가는 길을 찾다> 기획전시는 오는 11월 15일(금)부터 내년 2월 28일(금)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(1층)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.
-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“지금까지 축적된 빛나는 과학기록유산이 오늘날 과학강국 대한민국의 바탕이 됐다”면서, “국가기록원의 방대한 기록정보 자원이 국립중앙과학관의 폭넓은 전시·교육 인프라를 만나 보다 많은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조이형 (031-750-2221) |
| | | 담당자 | 연구관 | 김자경 (031-750-2086) |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